

중 유전 사고... 수입 수산물 검사 강화

보하이만 원유 유출 40일째... 10만 추정 태안사고의 10배 840km² 해역 오염, 조기·전복 등 폐죽음... 서해안 피해 우려

중국 보하이만(渤海灣·발해만)의 해상 유전에서 원유가 계속 새고 있어 서해안 주민들의 걱정이 날라 커지고 있다. 특히 인근 해역의 양식 어류가 의문의 폐죽음을 당하는 등 해양 오염 피해가 예상보다 커 중국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사고 경위=지난달 4일부터 보하이만 해상 평라이(蓬萊) 19-3 유전에서 원유가 유출됐다. 중국해양석유와 코노코필립스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19-3 유전의 면적은 3200km로, 중국 최대 해상 유전이다. 유출된 기름이 태안에서 유출된 기름량의 10배에 해당하는 10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산둥(山東) 성 등 인근 해역 840km가 오염됐다. 코노코필립스 등 원유 시추회사들은 사고후 지난달 중순에 갑갑과 시멘트 밀봉 등을 통해 유정 수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유출 원유와 혼합물질 약 70m를 회수하는 등 사후조치를 거의 마

무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해양국 해양환경보호사와 해양감시총대 등 관계자들이 구상된 연합 조사팀이 지난 10일 현장을 정밀 조사한 결과 시추대 부근에서 소량의 원유 유출 흔적이 발견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1일 국가해양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피해상황=보하이만 사고 유전에서 약 74km 떨어진 산둥성 다진다오(大欽島)에서 지난달 말부터 해상 양식 중인 조기, 전복 등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잇따라 폐죽음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 당국은 양식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진다오에서 양식업을 하는 주민은 "원유 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의 흔적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는 없다"며 "물고기가 원인 모르게 죽어가고 있다"고 흥분 원화보(文匯報)가 보도

했다.

리샤오밍(李曉明) 국가해양국 해양환경보호국장은 "사고 해역의 해수 내 기름 농도가 최고 86배까지 증가했으며, 840km에 달하는 해역의 해수 수질이 1급수에서 4급수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리 국장은 "해당 지역의 어업을 이미 중단했으며, 유출 사고가 난 유정을 봉쇄하고 해수면으로 변진 기름피도 거의 제거했다"면서 조속 대처는 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영향=당초 중국 해양국은 기름띠가 서해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회박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한달이 넘도록 원유가 계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원유의 기름띠가 보하이만 해역은 물론 해류를 타고 한반도 서해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주요 수산물 공급기지



인 이 해역에서 수산물을 대거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정확한 방제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수산 당국은 산둥(山東)·허베이(河北)·랴오닝(遼寧) 등 3개 성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의 안전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오염지대가 우리 해역과는 무관하다"면서 "사고 해역 인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위생식품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연합뉴스



도시환경협약광주정상회의 10월 11~13일 개최

(2) 에너지

LED 사업·신재생에너지 확대 노력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5% 감소 약속 기업·시민 적극 참여 '탄소은행제' 성과 보여

지난 2005년 광주가 가입한 '도시환경협약'에서는 첫번째로 에너지 문제가 대두됐다. 산림벌채, 산업발전 등에 따른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 등으로 온실가스 발생량이 늘어나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변이 속출한 데에 각 도시는 동의했다.

이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가시켜 2012년까지 최대전기 부하량의 10%를 충당하고 ▲에너지 효율화, 수요조절, 보완대책을 마련해 2012년 내 최대전기 부하량 10% 감소시키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5%를 감소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광주는 이를 지키기 위해 태양광·연료전지·폐기물·바이오 에너지 등 전기생산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솔라시티(Solar City) 건설계획 수립, 에너지 절약 정책, 탄소은행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민교육 등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008년 전국에서 처

것인 사실"이라며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5년 협약에 대한 광주의 에너지 정책 추진상황은 부진(C등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기공급량은 매년 늘고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전체 전기소비량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가기 때문에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총당량은 1.46%에 불과했다. 특히 최대 전기부하량은 2005년 982MW에서 지난해 1203MW로 늘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도 2005년에 802만5000톤에서 2006년 808만9000톤, 2007년 832만8000톤, 2008년 844만5000톤으로 매년 늘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평균증가율을 상정해 최대 전기부하량의 감소분을 따지면 지난해에도 20%나 감축했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고는 있지만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LED 사업 추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환경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영터리 환경영향평가 업체 28곳 적발

환경부, 등록취소 1곳·영업정지 4곳 등 행정처분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및 측정대행업체, 자연환경 조사업체 13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광주시 동구 1곳·여수 1곳 등을 포함한 관련법령 위반 28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업체에 대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1곳), 영업정지(4곳), 과태료(17곳), 경고(11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광주시 동구의 A업체는 측정 기초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경고 및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여수의 B업체는 4년간 연속해서 대형실적이 없어 등록취소 조치를 취했다.

이외에도 평가대행 기술인력이 법정 최소요건보다 3분의 1 이상 부족한 울산의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을, 환경질 측정 결과를 허위로 기록한 경기 소재 1개 업체에는 영업정지 30일과 고발 조치를 취했다.

또 측정기기 정검사를 하지 않은 서울과 경기 양안의 5개 업체와 법정 자격요건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측정대행업 준수사항을 위반한 울산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험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은 2개 업체와 무자격자로 시료를 채취한 3개 업체, 2년 간 연속해서 대형실적이 없는 1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환경현황 기초자료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처럼 법을 위반해 거짓 또는 부실하게 조사하는 업체가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목타는 소말리아

11일(현지시간)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시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식수 등 필수품을 배급받고 있다. 지난 2주간 계속된 가뭄으로 남부에 거주하는 주민 수천명이 모가디슈로 피난했다. UN 관계자는 소말리아와 케냐, 에티오피아, 지부티 등에서 발생한 최악의 가뭄으로 식량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도쿄 인근 30년 내 강진 발생 확률 70%

위성탄타임스 밝혀... 간토 지방은 쓰나미 가능성

앞으로 30년 안에 규모 7.0 이상의 대형지진이 도쿄 인근 지역을 강타할 가능성이 70%나 된다고 위성탄타임스가 일본 정부 지진연구기관을 인용해 최근 전했다.

일본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에 따르면 향후 30년 이내에 도쿄 등 간토(關東) 남부에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할 위험이 70%이며 이바라키(茨城)현 인근에서는 강진 위험이 더 높아 가능성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쿄 남쪽 도카이(東海)와 나고야 인근 도난카이(東南海)에서 규모 8.0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각각 87%와 70%로 파악됐다.

오사카 부근 난카이(南海)에서 규모 8.4의 강진이 날 확률은 60%로 추정된다.

사가미 해구(海溝)와 난카이 해구(關東) 남부에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할 위험은 특히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간토 지방은 1677년과 1703년,

1854년, 1855년, 1894년, 1944년, 1946년에 쓰나미 피해를 입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다.

일본 정부와 전문가, 시민들은 강진 재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재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오키 사토코(大木聖子) 도쿄대 조교수는 지난 2004년 20만명 이상이 숨진 인도네시아 강진과 쓰나미를 거론하며 "2004년 인도양에서 발생한 일을 주목해 일본에서도 동일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했어야 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천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 -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 (고객지원팀)